



警大學報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Press



祖國正義名譽

2015년 6월 24일(수)

제194호

발행인 황성찬 | 주간 하미나 | 편집장 주취진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 74 | 전화 (031) 620-2114 | www.police.ac.kr

제35회 청람체전 개최 경찰대학 가족의 화합 한마당

푸른 빛이 가득했던 5월 14일과 15일 이틀간 경찰대학에서는 제35회 청람체전이 펼쳐졌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하게 된 청람체전은 대학생만의 축제가 아닌 교직원, 의경, 치안정책과정 교육생 등 경찰대학의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으로 거듭났다.

예선전은 4월 13일부터 4월 16일과 5월 7일부터 5월 13일동안 약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탁구, 배드민턴과 같은 실내 종목은 사전에 예선과 결승이 모두 치루어졌고 축구, 농구, 풋살 등의 종목은 체전 당일 날 실력을 겨룰 팀을 미리 결정했다. 올해 체전은 T볼과 e-sports(리그 오브 레전드)가 신설되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소강당에서 해설진을 두어 중계를 하는 등 예년과 다른 독특한 흥미를 더했다.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대부분의 예선 경기는 중간고사 이전부터 학교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 열



▲ 청람체전의 백미 기마전 결승전을 경찰대학 대운동장에서 1생활관과 4생활관이 치르고 있다

렸으며 학생들은 각각의 경기 때마다 함께 모여 서로를 향한 힘찬 응원의 함성을 질렀다. 5월 13일 체전 전초전에서는 닭싸움과 씨름 경기가 펼쳐져 체전의 분위기를 한창 고조시키며 열기를 더했다. 그 후 트렌디한 영상을 패러디하여 웃음을 선사해 준 재미있는 방송제 영

상을 시전한 뒤, 각 학생대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하게 팀을 꾸려 체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표출하는 응원전이 펼쳐졌다. 학생기가 펼쳐져 체전의 분위기를 한창 고조시키며 열기를 더했다. 그 후 트렌디한 영상을 패러디하여 웃음을 선사해 준 재미있는 방송제 영

사를 시전한 뒤, 각 학생대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하게 팀을 꾸려 체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표출하는 응원전이 펼쳐졌다. 학생기가 펼쳐져 체전의 분위기를 한창 고조시키며 열기를 더했다. 그 후 트렌디한 영상을 패러디하여 웃음을 선사해 준 재미있는 방송제 영



▲ 3생활관과 4생활관이 경도관에서 농구 결승전을 치르고 있다

한 경쟁을 벌였다. 특히 친선 줄다리기에서는 대학장이 직접 대학생 팀과 함께 줄을 당기며 힘을 보태기도 하였으며, 교직원 팀, 교향악단 팀과의 격렬한 접전 끝에 대학생 팀이 최종 우승하였다. 오후에는 격구와 기마전의 예선전이 치러졌고 T볼, 발야구, 족구, 피구, 풋살,

e-sports(리그 오브 레전드)의 결승이 차례대로 진행되었다.

체전 둘째 날인 15일 오전에는 학생대 간의 줄다리기, 릴레이 계주, 축구, 농구의 결승이 열렸다. 오후에는 기마전의 결승 학생 우승팀과 교직원·의경 혼합팀의 친선축구가 진행되었고, 이어서 격구의 결승

전이 진행되었다. 그 후에 체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경찰대학생 전원과 의경이 참가하는 약 5km에 달하는 마라톤이 진행되었다. 남자는 행정학과 3학년 전진욱 학생이, 여자는 법학과 2학년 박지오 학생이 1위를 차지하였다. 종합 우승은 1학생대와 총점 39점의 차이로 치열한 접전 끝에 4학생대가 차지하여 우승기를 수여 받는 영광을 누렸다.

2년 만에 치루어진 체전이고, 용인 캠퍼스에서의 마지막 체전인 만큼, 제35회 청람체전은 예년보다 더욱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체전을 통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심신을 단련하는 계기가 되고, 체전준비위원회가 열심히 준비한 흥미롭고 다채로운 경기와 행사로 가슴 한켠에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지게 되었길 바란다.

〈2학년 민동주 기자·alsehdwn123@naver.com〉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경찰대학을 방문하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리더십 특강



▲ 울리 슈틸리케 축구감독이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리더십에 대하여 강연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경찰대학생, 직무교육과정 교육생과 교직원들을 비롯하여 의장대 대령, 무궁화 체육단 등 650여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울리 슈틸리케의 리더십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은 '청람

리더십아카데미 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대학생의 올바른 인성과 리더십 향상이라는 교육 목표로 부합하는 외국인 지도자 초청 특강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슈틸리케 감독은 스페인 '레알 마

드리드' 클럽팀에서 선수 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며, 스위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수석코치, 코트디부아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강연의 주제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의 리더의 역할"로 외국어 강의를 순차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 53년간 축구선수와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관계임을 강조하며,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11가지 덕목으로 '신뢰, 정직, 의사소통, 정체성 부여, 상호 존중, 개성, 경쟁력, 객관성, 동기부여, 자기성찰, 모범' 등을 꼽았다. 또한 "강압 또는 지시에 의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즐거움에 의해 일하라"라고 역설하면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능동적인 자세를 강조하였다. 또한 조직을 유기적으로 이끄는 비결에 대해 "리더는 항상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슈틸리케 리더십 특강을 청취한 경찰대학생은 "슈틸리케 감독의 열정에 감동받았다. 왜 그가 최고의 감독이라 호평을 받고 선수들로

부터 존경받는 감독인지 알 수 있었다. 슈틸리케의 '휴머니즘 리더십'이야말로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후나 머니즘 리더십을 갖춘 경찰 지도자로 성장하여 존경받고 인정받는 리더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강연 이후에는 청강자 5명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질문자에게서 싸인볼을 증정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경찰대학장과 지휘부, 학생 대표가 경찰 계급장과 문진을 기념품으로 전달하며 환송을 하였다.

경찰대학은 1981년도 개교 이래 지역체를 갖춘 주역으로서 3,588명의 졸업생을 배출해왔다. 치안현장에 보다 적합한 리더십을 갖춘 경찰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사회 각 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3학년 현동훈 기자·hjdking5@naver.com〉

가평 꽃동네 자원봉사활동으로 사랑을 나누다

생활지도교수의 인솔 하에 경찰대학생 20명이 2015년 5월 10일 가평꽃동네를 방문하여 봉사 활동을 펼쳤다. 1989년 설립된 가평꽃동네는 수도권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국가의 도움과 꽃동네 가족들의 사랑으로 건립된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이다.

경찰대학생은 정신장애인·심신장애인·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독서도우미, 식사도우미의 역할을 맡으며 말벗하기, 산책하기, 청소하기, 세탁물 관리 등을 하며 봉사활동에 열성을 다했다.

경찰대학 인성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평꽃동네 단체 봉사활동은 미래 경찰관으로서 가장 큰 덕목인 회생과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시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활동은 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계절학기 등을 포함한 정규학기 중 일과시간 외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운영하여 모든 학생이 한 번 이

상에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 활동수기를 공모하여 우수자에게는 표창과 장려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꽃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찰대학 1학년 김태환 학생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환우분들을 직접 돌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라며 "꽃동네에서의 인사가 '안녕하세요'가 아닌 '사랑합니다'인 것이 인상깊었는데, 저 또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세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가평꽃동네 봉사활동으로 올바른 국가관과 생활 문화를 체득하고 졸업 후 국민의 눈높이에서 치안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교내, 교외에서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진정한 경찰의 모습을 가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4학년 조민지 기자·skysky875@naver.com〉

2016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1 모집구분 및 정원

가. 전형별 모집정원

모집구분	계	일반전형	특별전형
		농어촌 학생	한마음 무궁화
계	100명	90명	5명
남자	88명	80명	4명
여자	12명	10명	1명

※ 특별전형 미충원 시 일반전형 정원으로 전환

나. 학과는 법학과, 행정학과 각 50명 정원이며, 2학년 진학 시 결정

2 지원자격

가. 일반·특별전형 공통(연령, 국적, 학력)

1995. 3. 1부터 1999. 2월 말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고등학교 졸업자, 2016.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응시 가능

나. 특별전형 지원자격

1)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아래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교표별 추천인원은 3명 이내)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의 부모 모두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에서 고교 졸업 시까지 6년동안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나.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3년(6학기)이상의 교육과정과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

아래의 '가', '나', '다', '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단, 결혼 이주에 외국국적을 가진 전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을 인정하지 않음

라.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3 시험일정

구분	일시	장소	내용
인턴십 원서접수 (10일간)	6.15(월) 09:00~ 6.24(수) 18:00	인턴십	●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서접수(대학홈페이지와 링크) ● 접수 종료 전까지 24시간 접수 ● 학업진행 차질없는 원서접수 후 지원 자격 증명 서류 기한 내 우편접수
1차 시험	7.25(목) 08:30~13:30	동시지구 지방경찰청 지원장소	● 지구(14명): 서울·부산·대구(경북)·인천·광주(전남)·대전·경기·강원·충청·전북·전남·제주·울산·충남 ● 지원자수는 원서접수 후 홈페이지에 공지 ● 수험료, 컴퓨터용 바인더,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대조 가능) 휴대
합격자발표	8.3(월) 09:00	인턴십	● 홈페이지 입시게시판에서 이미 접수
2차 시험	합격자발표 시 ~ 8.7(금) 18:00	인턴십 또는 우편(동기)	● 대학 홈페이지 발표(SMS 발송) ● 원서접수 홈페이지 성적 개별 확인
최종 합격자 발표	12.14(월) 09:00	인턴십	● 대학 홈페이지 발표(SMS 발송) ● 최종사정 진행에 따라 조기발표 가능
합격자 등록	2016년 1.4(월) 09:00~ 1.5(월) 18:00	인턴십	● 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증 출력 및 등록표 작성 입력
1차 추가합격자 발표	1.6(수) 09:00	인턴십	● 대학 홈페이지 개별 확인, 합격증 출력
1차 추가합격자 등록	1.7(목) 09:00~ 1.8(금) 18:00	인턴십	● 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증 출력 및 등록표 작성 입력 ● 이후 등록모기지 발생 시 개별 통지
청람교육 입교	별도 계획에 의거 홈페이지 공지	경찰대학	● 본인인 직접 입교(2주 간 합숙) ● 미입교(회교)자 발생 시 추가합격 개별 통지

4 시험방법

구분	과목	국어	수학	영어	비고
	문항 수	45문항	25문항	45문항	
	시험시간	60분	80분	60분	
1차 시험	출제형태	객관식(5지선다형) ※ 시험 당일 시험지 상단에 시험 방법			□ 모집정원의 400% 선발 □ 최종 사정에 변경
	배점	전체 100점	100점	100점	
	문항	2월, 3월, 3월, 4월, 5월, 2월, 3월			
	출제범위	국어상·하 수능A·B형 수능A형 범위 수능B형 범위 수능C형 범위	수학 상·하 수능 A형 범위	수능 범위 (문/리/제)	
2차 시험	□ 신체검사, 체력검사, PAI 인정검사, 면접시험				□ 신체검사는 합격·불합격 결정 □ 체력검사·면접시험은 합격·불합격 결정후 최종 사정에 변경 □ PAI 인정검사는 면접자료로 활용
	□ 제1차 시험 성적	20%(200점)			□ 학생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 체력검사 성적	5%(50점)			□ 수능은 표준점수 적용
	□ 면접시험 성적	10%(100점)			□ 면접점수 반영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15%(150점)			□ 학생부 반영
최종 사정 (1,000명)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50%(500점)			□ 최종사정 방법 참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개입,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로



▲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2년,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가해자의 동의 없이 경찰이 폭력현장에 개입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풍토상 경찰이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가정폭력은 개개인의 가정문제로 치부되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조차 밖으로 알려질 것을 꺼려하여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금년 1월 13일, 안산 인질극이 일어나면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가정폭력의 경찰 개입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가정폭력의 비극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가정의 달 5월이 되었고 또다시 경찰의 개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개입의 배경
과거에는 아무리 경찰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폭력의 현장에서 직접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2012년 5월 2일, 경찰 개입을 허가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가해자가 집의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접근을 막아 경찰이 가정폭력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상황이 급박하다면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가정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인지 경찰의 단일한 대응

은 계속되었고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경찰 개입에 대한 찬반

경찰이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찬성 측에서는 가정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입장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폭력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폭력을 당하면서 폭력의 상황에 순응하게 되어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미 가정 내부에서 폭력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 공권력을 사용하여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가정폭력이 살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요즘에는 더 늦기 전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경찰 개입 반대의 핵심은 역시 사생활 및 인권 보호이다. 영장의 발부도 없이 개인의 집을 수사하는 것은 경찰권의 남용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선부는 판단이 오히려 불필요한 개입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부부싸움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혹시 모를 피해 방지를 위해 가택에 임의로 들어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집안에서 실제로 심각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만약 사소한 부부싸움인 경우에는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까지 낭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적극적 개입보다는 사전에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인권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을 막는 것은 경찰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 의견이 있다. 경찰에게 가정폭력을 막는 것을 의무화하면서 인권 보호를 운운하며 경찰의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지금까지 제한적인 수사력으로 인하여 경찰들은 가정폭력에 비효율적으로 대응하다가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경찰의 직무유기를 지적당했다. 이렇게 경찰은 인권 보호와 가정폭력 해결 사이에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인권 침해를 감수하고 경찰이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정폭력방지법 같은 법과 제도만으로 가정폭력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경찰의 개입 등의 제도가 오히려 가정폭력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경찰을 개입시키더라도 가정폭력 대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은 이러한 매뉴얼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특성	
은폐성	가정 내 은밀히 발생, 외부인이 인지하기 어려움
반복성	일회성이 아닌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
순환성	세대 간 대물림되는 경향이 강함
중복성	한 번의 폭행으로 여러 가족에게 피해를 줌

■ 경찰의 입장

경찰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다소 미흡하였으므로 경찰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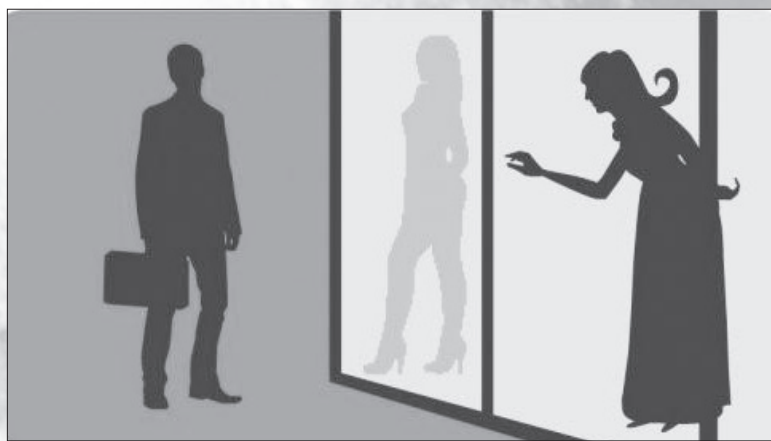
폭력을 강력범죄에 준해 적극적으로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긴급 임시조치를 어기고 피해자를 계속 폭행한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쓸모없는 대응을 하기보다는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서에서 가정폭력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과 심의위원이나 다양한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경찰 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의 의미 없었던 가정폭력방지법과 그 관련 제도들이 본래의 목적을 찾고 경찰이 가정폭력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전방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 4대악 척결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경찰이 4대악의 근절에 앞장서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 가정폭력의 해결은 사회적 척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가정은 사회의 최소 단위일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정폭력으로 가정이 흔들리고 이에 따라 사회도 흔들리고 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각각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가정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인권 보호를 위해 하나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리고 생명이 보호받아야할 정도의 심각한 가정폭력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인권을 침해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인권과 생명 각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두 가지 모두 최대한 존중하며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더 촘촘하고 세세한 제도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경찰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며 가정폭력 문제를 근절하는 것을 기대한다.

〈2학년 최현필 기자 · schp5065@naver.com〉

성매매 특별법을 둘러싼 직업선택의 자유와 윤리의 논쟁



지난 4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공개변론은 성매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성매매 특별법 제 21조 1항에 관하여 진행되었다.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성은 공식적으로는 2012년에 처음, 성매매 여성이 위험범률심판을 제정하면서 문제되었다. 이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성매매 특별법 위헌론과 합헌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본 공개변론은 37가지의 쟁점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우선 성매매 특별법 제 21조 1항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성매매 특별법 위헌론은 성매매 역시 사적 생활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적 영역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합헌론은 성매매의 비윤리성을 지적한다. 성을 사고파는 것만큼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없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성매매를 단순한 사생활로 볼 수는 없다.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성매매 한 번에는 구매자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인권을 침해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인권과 생명 각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두 가지 모두 최대한 존중하며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더 촘촘하고 세세한 제도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경찰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며 가정폭력 문제를 근절하는 것을 기대한다.”

성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성을 파는 여성들을 처벌해야 하는지 또한 논쟁거리이다. 성 판매자 여성들 중에서는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시작한 여성들도 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이 업종에 종사하게 된 여성들이 많다. 감당할 수 없는 사

매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성매매업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제주의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로 재직 중인 김강자 전 총경은 특정 지역에 한해 성매매를 허용하는 공장제를 도입하면 성매매 환경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매매 특별법 합헌론은 공장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가 문란한 사회적 분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현재 성매매 특별법의 대안으로는 성 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스웨덴 모형과 공장제로 대변되는 독일, 네덜란드식 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각각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들은 이제에 대해 생계형 성매매는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어렵고 형사적 제재를 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합헌론은 이를 ‘배고프다고 도둑질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자는 논리라고 비난하며 ‘어쩔 수 없다’는 것의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다. 생계형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더욱 쉽게 성매매를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나온다.

한편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성에 관한 논쟁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것이 바로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 문제이다. 2000년, 감금된 성매매 여성들이 화재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군산 대명동 화재 사건이 있었다. 성매매 특별법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제정되었다. 위헌론은 특별법 21조 1항이 이러한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성 판매자 또한 처벌받기 때문에 인권 유린의 대상이 되면서도 신고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특별법 때문에 일반 사업을 병자하거나 스마트폰, sns 등을 이용해 주택가로까지 숨어든 ‘음성형 성매매’가 성행하게 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방형 성매매보다 단속하기 어려운 음성형 성매매에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학대나 착취 등이 더 많이 자행된다. 일부 위헌론은 성매

〈2학년 박지오기자 · giomike95@naver.com〉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 환경보전과 경제논리의 끊이지 않는 딜레마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제도의 사전적 정의이다. 용어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 그린벨트는 본래 규제적 성격이 짙은 제도이다. 그런데 지난 5월 6일,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30만㎡ 이하의 그린벨트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되었고,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의 기준이 완화되었다.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지금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방안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고 경매가 활성화된 한편 충청권에서는 이 방안에 반대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이 개시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

안은 종전의 제도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더욱 성장시킨 결과물이다. 그린벨트의 효율적 운용 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은 97년의 해제 정책과는 달리 새로이 공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방안은 제도를 경제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제로 개선안은 규제 개혁 신문고에 제기된 민원들을 분석하고 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으로 수립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환경보전 둘 다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0%를 녹지로 만들어 기부하면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환경 보전을, 개발제한구역에 지역 특산물 판매와 체험을 위한 시설을 세울 수 있게

해제기간 2년→1년
● 국토부 심의 결정 과정 폐지 ● 지자체 계획 승인만으로 해제
그린벨트 내 주민 마을사업 허용
● 지역 특산물 가공 · 판매 · 교육시설 가능 ● 농어촌 체험 · 휴양사업 허용
축사 등 훼손지 복구 추진
● 축사 등 정비하고 사업지 30% 공공기여할 경우 2017년까지 참고 건립 허용

▲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서 지역 경제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들 때문에 지역사회는 개선안의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방안’이 환경 보전의 가치를

이 외에도 수도권에 개발이 더욱 집중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부의 조명래 교수는 “한국의 그린벨트 제도는 세계 각국이 모델링하고자 하는 우수한 제도이다. 이번 개선안은 이렇게 우수한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공공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며 규제 개선 방안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환경 보전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의 토지들이 개선안의 대상이고 중앙 정부의 사전 검토를 거치게 하는 등의 안전장치들이 존재한다고 반박한다.

개선안의 실효성 또한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기존의 그린벨트 제도가 지역 내 5년 이상 거주자에게 각종 시설 설치에 우선권을 부여한 데에 대하여 개선안은 이러한 ‘5년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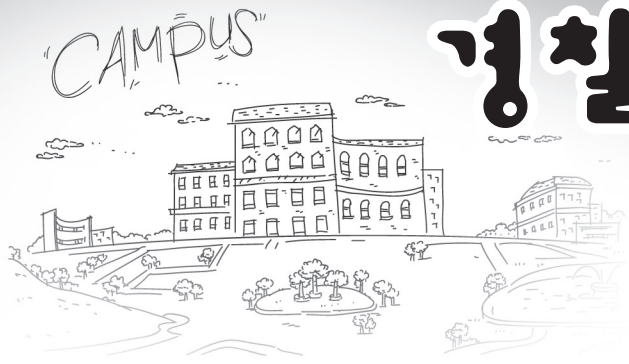
주 기준’을 폐지했다. 경기도 그린벨트 면적의 62%가 외지인 소유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거대한 자본력이 지닌 외지인의 투기가 격정될 수 밖에 없다. 우려가 현실이 되면 지역 경제개발이라는 개선안의 가장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정부가 안전장치로써 내걸은 방침에 대한 비난도 일었다. 논란의 대상은 그린벨트를 해제할 시 국토교통부와 사 이에 대해 정부는 환경 보전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의 토지들이 개선안의 대상이고 중앙 정부의 사전 검토를 거치게 하는 등의 안전장치들이 존재한다고 반박한다.

개선안의 실효성 또한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기존의 그린벨트 제도가 지역 내 5년 이상 거주자에게 각종 시설 설치에 우선권을 부여한 데에 대하여 개선안은 이러한 ‘5년 거

전국적으로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다. 일부 지자체는 이 방침이 지역의 자치권을 확장시키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9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할 것으로 밝힌 만큼,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방안이

〈2학년 박지오기자 · giomike95@naver.com〉



경찰대학 새 터전

아산캠퍼스의 이모저모



▲ 아산캠퍼스 항공사진

경찰대학이 충청남도 아산시로 이전하기로 처음 결정되었던 2007년부터 8년의 세월이 흐른 끝에, 마침내 2016년부터 학사일정을 아산 캠퍼스에서 보내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올해가 용인캠퍼스에서의 마지막 해가 되었다. 그러나 이전을 눈앞에 두고 전체 학생들에 홍보자료를 배부하는 한편 두 차례에 걸쳐 생활지도 시간에 설명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지 않았던 관계로 학생들의 모든 궁금증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이에 새로운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해 현실로 바짝 다가온 아산캠퍼스의 건설현황과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 각 시설물에 중점을 두어 다루어 보고자 한다.

■ 현재 진행상황

경찰대학 아산캠퍼스는 2013년 8월 7일 착공하여 2016년 4월 2일 완공을 목표로 하며,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약 52%의 추진공정률을 보이며 원만히 진행 중이다. 새 캠퍼스 부지에는 총 29개 동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 대학생 생활관

기존 용인캠퍼스에서 남학생 4개 동, 여학생 1개 동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대학생 생활관은 단일 건물로 합쳐진다. 5생활관을 사용 중이었던 여학생들에게는 1층과 2층의 일부가, 1~4생활관을 사용 중이었던 남학생들에게는 2층의 대부분과 3~5층이 배정된다. 새로운 생활

관에서는 각 층별로 기존의 생활관별 학생대(중대) 개념을 유지하게 되어 생활실 배정 패턴도 기존과 유사하여 섹터제도 역시 존속하게 되므로 선후배 간의 유대감도 누릴 수 있다. 생활실의 경우 감축된 정원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괄적인 4인실 형태에서 저학년을 위한 3인실과 고학년을 위한 2인실을 혼합한 형태로 나뉜다. 생활실을 4등분하여 만든 개인별 공간에서 취침, 학습, 환복 등 일체의 활동이 이루어졌던 기존의 구조 대신 취침공간과 학습공간, 환복공간을 모두 분리하여 심야조명에 대한 부담감을 덜었으며, 정원이 다 차지 않은 생활실에서 두드러졌던 공간낭비 역시 대폭 줄일 수 있다. 기존에 생활관 각 층별로 1개씩 존재하던 샤워실과 화장실은 통합되어 각 생활실 내로 편입되어 편의성을 더하였다. 낙후되었던 냉난방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였고 급전 들어 도입된 무선인터넷 역시 계속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 직무생활관 및 의경생활관

직무생활관 및 의경생활관은 학생생활관과 유사하게 각 생활실의 설계 및 배치에서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직무생활관의 경우 학생생활관 및 의경생활관과 역할이 확실히 분리되어 정체성이 확립한

건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의경생활관의 경우 정원 조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또한 기존에 흩어져있던 의경대와 교향악단, 체육단을 인접 건물에 배치하여 집단생활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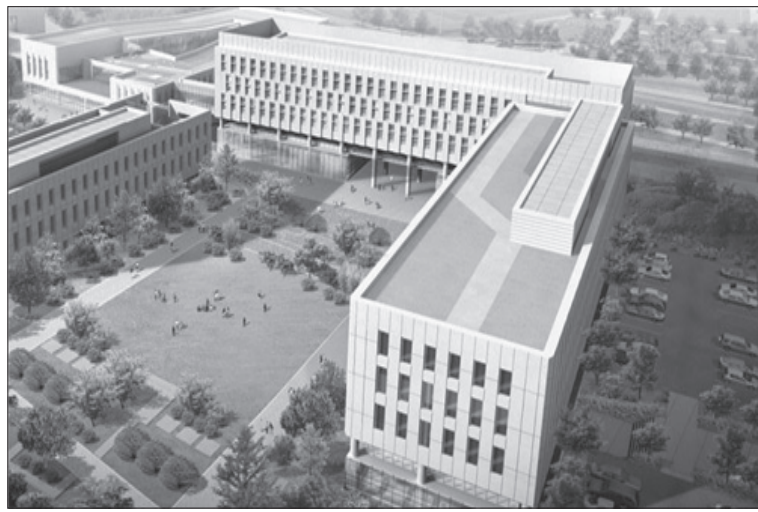
■ 학생회관

학생회관 1층에는 별도의 건물로 존재하였던 학생식당 및 교육생·의경식당이 통합 편입되었다. 이외에는 기존처럼 매점, 노래방, 의무실 등이 위치하며, 2층에는 동아리실과 동호회실이 대폭 확충·개선된 형태로 배정되었다. 주목할 점으로는 각 동아리실을 중심

으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던 동아리활동의 영역을 외부로 확대하여 ‘동아리 마당’과 다목적 갤러리홀을 설치한 점과, 야외에 노천카페 형태로 이용 가능한 조경을 계획한 점이 있다.

■ 경도관

기존에 지상2층만으로 구성되었던 경도관은 지하1층이 추가되어 용인캠퍼스에서 여러 해 동안 기능 정지 상태에 놓여있었던 실외수영장이 실내로 전환, 편입되었다. 또한 1층에서 일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던 무도수업의 집중도와 전달력 향상을 위하여 각 층에서 2개 반이 수업하는 방식으로 분리되었다. 주



▲ 아산캠퍼스 연구강의동

경기장은 농구, 배구, 족구, 배드민턴 등의 경기가 모두 가능하도록 다목적으로 설계되었다.

■ 연구강의동

새 연구강의동에는 원격강의실을 구현하여 지방이전 후에도 우수교수의 수업을 변함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에 학생들과 강의실을 공유하였던 치안정책과정 및 KOICA 협력교육을 위하여 전용 강의실을 신설하여 학생들과 타과정 교육생들의 동선이 겹치는 불편을 줄였다. 또한 여러 형태의 수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 강의실 역시 다양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LED전등과 멀티사이버보드 등 기존 대비 대폭 개선된 시설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였다.

■ 도서관

캠퍼스 이전 과정에서 가장 크게 향상되는 시설 중 하나인 도서관은 용인캠퍼스 내 시설 대비 2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며, 장서량 역시 15만 권에서 40만 권까지 큰 폭으로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중앙에는 자연친화적인 중정과 북카페테리아를 연계 제공하여 이용자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였다. 세미나실을 140석 규모로 증설하였으며, 스터디룸은 중소규모의 여러 방으로 분할

하여 학습집중도를 높였다.

■ 실내사격장

기존 용인캠퍼스에서도 실내사격장을 개선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번번히 좌절되었는데, 아산캠퍼스의 새 실내사격장은 용인에서의 모든 염원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규모가 커진 것은 물론 다양한 현장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사격장 15사료가 추가되었다. 또한 기존에 수동으로 표적을 걸고 탄약을 확인하던 과정은 컴퓨터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전면 대체되었고, 기존에 다소 위험한 수준에 있었던 사수보호시설과 분진·유해공기 배출시설 역시 현재의 필요에 맞게 개선되었다.

개교 이래 35년을 학생 및 직원들과 함께하였던 용인캠퍼스를 뒤로 하고 떠나면서 여러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아산캠퍼스에서는 모두의 생활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될 것이다. 새 캠퍼스에서 펼쳐질 대학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2학년 심동영 기자·blackfeb22@naver.com〉

대학 학과동 폐합의 실상과 폐해



▲ K대 예술디자인대학의 싸움을 지지하는 비대위 기자회견

3월 30일, 서울 K대학교에서 총학 생회가 학교의 학사구조조정안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4월 13일에는 K대를 필두로 7개 예술대학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K대 예술디자인대학의 싸움을 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발대를 공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 학생들은 ‘사과달기 운동’을 진행하였다. ‘사과달기 운동’은 앞서 학생들의 항의를 들은 K대 대학본부 측에서 유사학과 10개를 통합하고 학부제를 학과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안을 두고 ‘사과 여러 개를 한 바구니에 담은 것뿐’이라 언급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서,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과 꿈의 다양성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지난 2014년 1월 29일, 교육부는 대학정원감축을 목표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저출산이 장기화되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추세에 비해 기존에 설립된 대학의 정원이 지나치게 많아 2018년부터는 대학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정원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구조개혁을 주문하면서, 대학별로 그 성과를 평가하여 5개 등급으로 분류, 등급별로 차등적 정원감축을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하위 2개 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제한할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종교지도자 양성목적 학과로만 이루어진 대학이나 예체능계열 학과로만 이루어진 대학, 신설·통폐합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학 등의 경우 정원감축을 면제·유예하거나 감축인원을 줄이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발표된 계획안은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계획안을 기초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시스템이 본래 가지고 있던 부작용들을 그대로 안고 갈 위험이 있었다. 졸업생 취업률이 주요 채점요소로 속하기 때문에 취업에 유리하지 않은 학과는 기존에도 우선적으로 폐과 대상이 되고 있었는데, 금년 계획에서는 이 안에 기초하여 최근 3년간 대학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조적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들 이들 학과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았다.

최근 5년간 일반대학의 단순폐과

사례는 총 270건인데, 이 중 인문사회계열이 135건으로 절반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취업률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인문사회계열 학과가 실제로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타 계열에 비해 구조조정의 피해를 더욱 크게 입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들도 생겨났다. 대학본부 측에서 구조조정을 위해 학과간 통폐합을 발표할 때, 학과 자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학과 간 실질적 유사성이 떨어지는 학과들을 일방적으로 병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평가점수를 얻기 위해 정원감축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 폐과 위기에 처하는 학과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다시 이 학과들을 타 전공과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학과들이 기이한 이름 아래 묶이는 일



▲ 사과달기 운동 중인 K대학교 학생들

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통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하면서 각 대학에 익년 대학재정지원사업신청서를 준비하기까지 3개월의 시간을 제공하였다. 그러자 시간에 쫓기게 된 대학들은 학사 구조조정을 두고 학생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신 자체적으로 구상한안을 학생들에 일방적으로 통보하

게 되었고,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과가 대학본부의 구상만으로 통폐합 여부가 결정되는 데에 분노하고 있다.

지방 간 격차를 확대하는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지방대학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경영상태가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학사 구조조정이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되자 비수도권 대학의 학과통폐합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모적인 경쟁을 방지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발표와는 정반대로 그간 정부정책의 주안점이었던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더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초학문의 고사를 둘러싸고 대학교육의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미 많았던 바, 이제는 재정지원을 무기로 한 무차별적인 학과통폐합을 넘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학교육 성과의 제고를 위한 생각이 필요한 때이다.

〈3학년 손선호 기자·tjsdlsgh9486@naver.com〉

한국 경찰사의 학문적 기반이 될 경찰역사자료 기증 수집

●기증 기간 : 연중 수시

●기증 및 수집자료

- 도서, 문서, 인쇄물, 사진, 동영상, CD, DVD 등

●기증 절차 및 처리

- 기증자료는 무상기증 원칙
- 기증의사 접수 : 전화, 메일, 방문
- 자료 기증시 “자료기증서”와 함께 접수

●기증자 예우

- 희귀자료 경우 감사장 수여
- 대학 주요 행사 초청

●기증 문의(경찰대학 도서관)

- 김동용 경위(031-620-2755),
- 송영학 행정관(031-620-2255)

주소 : (우446-70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성남로 74 경찰대학 도서관





갑질의 횡포로 멍드는 대한민국

■ 2014년을 강타한 갑질 논란

얼마 전 인터넷 SNS 상에서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논란이 된 사진은 한 대학교의 축제를 찍은 것으로 연예인 초청 공연 중 학생회 임원들이 앞쪽에 특별히 마련된 귀빈석에 앉아 있는 장면이었다. 네티즌들이 더욱 분노한 이유는 그 주변으로는 대학의 해병대 전우회가 바리케이드를 쳐 일반 학생의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이었다. 네티즌들은 이를 대학교 학생회의 슈퍼 갑질이라며 비난하였고 이로 인해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화제가 되었던 갑질이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2014년 하반기를 관통한 키워드로는 단연 갑질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카다미아를 봉지체로 가져다주지 않아 비행기를 회항시킨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사례부터 기본 나쁜 행동을 했으며 주차요원을 무릎 꿇린 백화점 모녀사건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는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일들을 계기로 갑질이 재조명되었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갑질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갑질

갑질을 사전에서는 관계상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 취업포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장



▲ 갑질에 관한 뉴스 보도 자료의 캡처 사진 (출처: SBS뉴스캡처)

인들은 정해진 일 이외의 업무를 요구받거나 욕설, 무시를 받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이 외에도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생의 90%는 일을 하며 부당한 대우를 겪었다고 한다. 부당한 대우로는 과도한 업무 요구나 열정페이부터 일과는 상관없는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 갑질의 사전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모든 부당한 대우가 갑질에 해당하게 된다. 갑질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갑질을 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보복이 두려워서, 혹은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갑질을 당해도 호소할 수 없고, 그저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갑질, 그 기나긴 논란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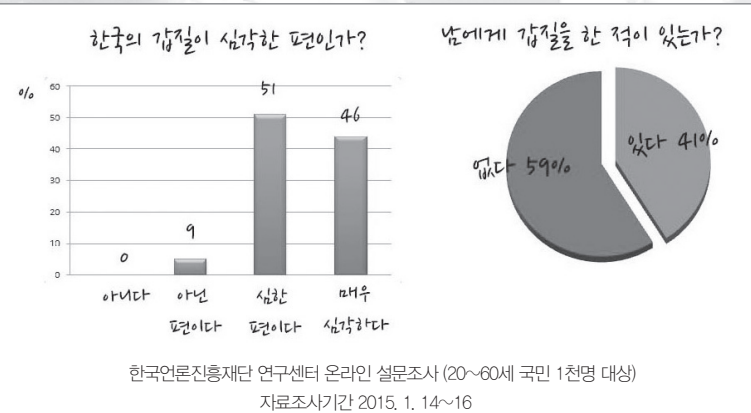
갑질이 처음 우리 사회에 나타난

것은 언제일까. 갑질은 어찌 보면 항상 인류의 곁에 존재하였다. 과거 봉건시대에는 권력을 가진 자의 갑질이 당연시되었다. 신분제 아래에서 을은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 같은 일을 하며 부당한 대우를 겪었다고 한다.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면서 갑과 을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상의 관계 그 이상이 아니게 되었다.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계약의 두 당사자가 평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갑질이 만연한 사회를 보면 꼭 이것이 현실이라고는 할 수 없는 듯하다. 얼마 전 한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땅콩회항사건과 갑질을 다룬 적이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청년들이 나와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대부분의 패널이 사회가 가진 자에게 유리하다고 대답하였다. 갑질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갑질의 원인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이 달랐다. 주로 서양의 패널들이 갑질을 사회적 책임과 무관한 개인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반면 동양의 패널들은 이를 사회지도자층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에서 동서양 갑질의 원인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근대사회를 거쳐 천천히 발전하여 시민의식이 발전할 시간이 충분하였던 서양은 갑질이 사회지도층의 문제이기보다는 일부 개인의 문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동양의 국가, 특히 한국은 과거 식민지 시기 이후의 빈곤 속에서 빠른 발전을 이루어 냈고 이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문화와 의식의 발전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의식과 행동 사이에 간극이 생기게 되었다. 즉 흔히 말하는 문화지체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는 황금만능주의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 가진 자가 못가진 자를 착취하는 형태의 갑질현상으로 발전하였다.

■ 갑질이 올린 보통 사람들

갑질의 더욱 큰 문제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을이라 갑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갑에서 을로 위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회사에서 혹은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는 을이었던 자신이지만 반대로 식당에서, 가게에서는 갑



▲ 갑질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

이 된다. 이러한 일부 '갑'이 자를 '을'들은 가정에서 갑이 되고자 할 때도 있다. 갑질이 가정폭력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유이다. 김수영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땅주인에게, 구청 직원에게, 동료 직원에게 갑질하는 반항하지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20원, 10원, 1원 때문에 갑질하는 자신을 자책하였다. 우리는 항상 갑질에 분노하지만 우리 또한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 갑질 퇴치를 위한 대책들

갑질이 오랫동안 지속된 만큼 갑질에 대한 대책 역시 오랫동안 마련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미뤄져 왔던 우리 사회의 의식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한다. 갑질 자체가 문화지체현상으로 인한 것이니만큼 갑

질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를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의식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공무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갑을관계 혁신 행동 강령 10가지를 제정하고 시행해 왔다. 여기에는 계약금의 합리적 산정, 정당한 대가 지급, 합의 내용 변경 시 사전협의 진행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저울시와 민간 기업 사이 관계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권에서도 갑질을 막기 위한 대책이 활발히 마련되고 있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할 때 다른 상품을 가입시키는 일명 '끼기'가 자주 일어났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출실행 후 1~2개월 내에 예·적금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전체의 40%에 달

한다고 한다.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수는 2012년 1900여 건에서 2014년 5건으로 급감하였지만 은행은 교묘한 편법으로 '끼기'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1개월 이후에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규제를 피해 자회사나 다른 회사의 상품에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끼기'를 5대 금융악으로 분류하고 집중 단속할 것을 밝혔다. 금융기관에 의한 부당한 소송의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 아직 벗지 못한 갑질의 굴레

이렇듯 사회 여러 방면에서 갑질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갑질을 완전히 없애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갑질을 완전히 뿌리 뽑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갑질에 관심을 갖고 육구로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 있어도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져 갑과 을이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학년 김강균 기자 · uko3403@naver.com〉

내 집 마련의 슬픈 그림자, 하우스 푸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신흥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에 따르면 신흥부부의 85%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맞벌이를 하는 이유 역시 40%가량이 주택마련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들 중 부부 자금만으로 주택을 마련한 경우는 22%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 중 35%는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말 가계부채는 1021조 원으로, 그 중 주택담보대출은 527조 원을 차지하고 있다. 대략 52%정도를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집을 구매하여 주택담보대출을 한 가구들이 그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 상승하던 국내 주택가격은 2008년 말 국제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었고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한 사람들은 주택가격의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의 하락과 대출 상환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들을 하우스 푸어라고 부른다. 하우스 푸어는 주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로, 외국에서는 하우스 푸어 대신 'negative housing equity' 또는 'underwater'로 지칭하고 있다. 이를 보면 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하우스 푸어 문제가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다. 2000년대 초 미국 금융시장에 돈이 넘치자 금융회사들의 대출 경쟁이 치열해졌고 집값을 100% 대출해주는 상품이 나오다가 하연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받는 상품까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대출을 하여 주택을 구매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자 주택을 압류당하거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빚으로 인

해 가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한국의 하우스 푸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근 사회문제에 대두되어 많은 관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우스 푸어가 늘어난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2008년의 국제 금융위기를 지적한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증가하면서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대출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집 담보대출, 단독주택담보대출, 재개발 아파트 대출 등으로 형태가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대신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월은 손도 못 대고 이자만 갚는 경우가 약 19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액수로 따지면 은행권 전체에서 75%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들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 추가대출을 받게 되고 빚이 점점 늘어나면서 하우스 푸어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단어로, 외국에서는 하우스 푸어 대신 'negative housing equity' 또는 'underwater'로 지칭하고 있다. 이를 보면 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하우스 푸어 문제가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다. 2000년대 초 미국 금융시장에 돈이 넘치자 금융회사들의 대출 경쟁이 치열해졌고 집값을 100% 대출해주는 상품이 나오다가 하연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받는 상품까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대출을 하여 주택을 구매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자 주택을 압류당하거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빚으로 인

해 가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한국의 하우스 푸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근 사회문제에 대두되어 많은 관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우스 푸어가 늘어난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2008년의 국제 금융위기를 지적한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증가하면서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대출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집 담보대출, 단독주택담보대출, 재개발 아파트 대출 등으로 형태가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대신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월은 손도 못 대고 이자만 갚는 경우가 약 19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액수로 따지면 은행권 전체에서 75%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들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 추가대출을 받게 되고 빚이 점점 늘어나면서 하우스 푸어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단어로, 외국에서는 하우스 푸어 대신 'negative housing equity' 또는 'underwater'로 지칭하고 있다. 이를 보면 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하우스 푸어 문제가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다. 2000년대 초 미국 금융시장에 돈이 넘치자 금융회사들의 대출 경쟁이 치열해졌고 집값을 100% 대출해주는 상품이 나오다가 하연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받는 상품까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대출을 하여 주택을 구매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자 주택을 압류당하거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빚으로 인



▲ 희망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하는 리츠의 홈페이지

하우스 푸어를 야기한 원인에 개인적인 사유보다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컸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역시 개인 단위가 아닌 사회 단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자금을 투입해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정부에서 혹은 기관에서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것 역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이하 리츠)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리츠는 하우스 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2013년 초 선보인 부동산종합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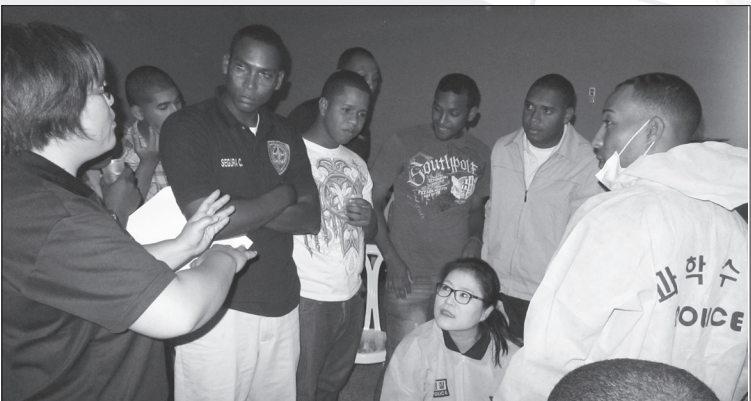
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팔지 않거나 팔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를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2013년 최초 사업 때 508가구를 매입하는 등 리츠는 큰 호응을 얻으며 첫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리츠는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는 단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중순 진행된 3차 사업에서는 주택가격 정상화를 이유로 172가구를 매입하는 데 그쳤다. 조금 더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하우스 푸어들을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대책이 연구되고 있지만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 신흥부부가 고소득층 신흥부부보다 집을 마련하기 원하는 비율이 약 10%정도 높았다고 한다. 어느새 행복을 위한 수단이자 야만 할 집이 행복을 포기하더라도 얻고 싶은 목표가 된 것 같아 아쉽다. 정책적 방안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의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

〈3학년 정한비 기자 · zizibi2002@naver.com〉

치안한류센터 한국의 치안을 세계에 알린다

2012년 가수 싸이가 발표한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 10억을 달성하고 사이트 전체 조회 수 1위에 등극하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단순히 수치로만 따져도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이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본 셈이다. 싸이의 음악 외에도 영화, 드라마, 노래 등 다방면에서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1990년대부터 일어났고 우리는 이를 한류라고 부른다. 이런 흐름 속에 또 다른 한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치안한류이다.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치안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이다. 한 언론사에서 2011년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중 89%가 한국의 치안에 대해 우수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만족하는 점 1위는 치안으로, 5점 만점에 4.29점에 달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밤늦게까지 안심하고 거리에 나올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치안시스템을 배우려는 국가들이 나타났고 이에 발맞추어 치안한류가 탄생한 것이다.



▲ 도미니카공화국에 파견된 경찰관이 과학수사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14일 경찰청은 외사국 산하에 치안한류센터를 설립했다. 국내 경찰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치안한류 사업을 행하기 위함이다. 2005년부터 경찰청은 한국 국제협력단(KOICA) 등과 연계하여 외국 경찰관을 초청해 한국 경찰 시스템을 전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4년 말까지 총 900명 이상의 외국 경찰관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육은 담당기관이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치안한류 프로젝트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서 치안한류센터를 발족한 것이다. 치안한류센터는 경찰청 외사국 외사기획과 소속으로 5명(경정1 경감2 경위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 내·외의 타 부처와 협력하여 치안한류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경찰청 치안한류 프로젝트가 거둔 대표적인 성과로는 카타르 월드컵 성공개최 지원요청에 따라 치안기법을 전수하기로 협의한 것이나 과테말라 경찰청에 인력을 파견해 사이버 안전·테러와 관련된 기술을 전수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경찰관 파견을 요청한 나

라는 22개국에 이르며 이 중 10개국에 우선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으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과거에서부터 계속된 외국 경찰관 연수 사업 역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치안한류센터를 중심으로 24개국에서 약 200명의 경찰관을 경찰 내부 교육기관에 초청해 치안시스템을 전수할 계획이다. 올해 초 동남아 4개국에서 16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경찰대학 내의 사이버범죄대응역량과정에 참여시킨 것도 그 일부로 생각할 수 있다. 치안한류센터가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우선 전문가들은 치안한류가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으로 이전까지 우수하다 평가받았던 한국의 치안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교포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치안교육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지 못한 국가들로 교포 대상 범죄가 일어나도 제대로 수사결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국가들에 한국식 치안체계를 전파하면 수사공조도 더욱 잘 이루어질 것이고 안전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각국에 순찰차, CCTV 등 국내산 장비들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치안과 연계된 첨단 산업 분야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부디 치안한류센터가 한국의 치안을 널리 알리며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학년 김영균 기자 · kayasdasd@naver.com〉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종기 명예 이사장



학교폭력은 4대 사회악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매우 심각한 사항이며 근절하고 척결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맞서 쉬지 않고 싸워 온 사람이 있다. 바로 김종기 푸른나무 청예단 명예 이사장이다. 김종기 이사장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5년 청예단을 설립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들의 치료에 힘쓰며 사회에 학교폭력을 알리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청예단에 있는 김종기 이사장을 직접 찾아가 청예단의 설립취지, 청예단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 경찰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의 말 등을 들어보았다.

1 청예단이란 무슨단체이며 설립 취지는 무엇입니까?

청예단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줄임말로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와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NGO)입니다. 청예단을 설립하게 된 이유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된 제 아들과 스스로 했던 약속 때문입니다. 두 번 다시 제 아들과 같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희망을 꿈꾸는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저희 단체의 사명을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UN경제사회에서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을 정도로 성장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 청예단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청소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한 일을 하면서 접해 온 아이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주 많은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의 죽은 아들 김대현군과 나이와 이름이 같은 아이를 만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도 한명이 아니라 두명을 만났는데 한명은 인천에 있고 한명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아이들 이었습니

다. 단순히 이름이나 나이를 떠나서 이런 아이들을 볼 때면 다른 사람의 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애착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실제로 만나 격려도 하며 연락을 종종 주고 받고 있습니다.

3 하는 일이 힘들 때마다 계속해서 이어가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아주 많습니다. 도움을 주고도 욕을 들을 때도 있고 도움을 주면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더욱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는 살면서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아들과의 큰 약속이 있습니다. 저만 편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 갈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계속 달려왔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는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은 적절한 대응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만을 다루는 정부의 관리자도 전문가도 아직 부족할뿐더러 이와 관련된 법

도 많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일수록 굴하지 않고 청예단이 더욱 노력하여 상황을 개선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4 과거에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인 청예단의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04년에 저희 청예단이 직접 서명운동을 하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조항이 없었고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아직은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을 정도로 민

감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더 중요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괜히 격정만 증식시킨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에 굴하지 않고 학교폭력을 알리기 위해 힘썼고 그리하여 이와 관련된 법률까지 제정이 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청예단에서 학교폭력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사전예방과 사후에 대한 치료, 관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에는 학교현장에서 하는 예방교육이 있고 사후에 대한 치료, 관리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상담사나 학교폭력예방교육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을 정도로 추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중인 김종기 명예 이사장

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제 아들이름을 딴 ‘대현장학금’을 만들어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았던 학생들을 후원하며 자립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청예단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5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적인 저의 목표는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청예단이라는 조직을 강화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나 다른 면에서나 안정이 되어 직원들이 안심하고 소신있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학교폭력이 없는 청예단 직속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학교폭력피해를 당했던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자신이 다시 기여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성과 창의력을 중시하고 참된 우정을 키우며 빠르게 커 나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기둥이 될 명재들을 기르는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

거 20년 동안 꼭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잘 해내어 목표한 바를 이루고 싶습니다.

6 경찰대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힘들게 들어온 국가의 인재인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뚜렷한 국가관과 소명의식, 목적의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잘되어야 국민이 잘 되는 것이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이 행복한 원칙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찰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그런 걱정거리가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경찰의 의무라는 생각을 품고 오열되지 않는 맑고 투철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경찰이 국가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이고 또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경찰대학생들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큼니다. 학생들 자신이 국가에 필요한 존재라 생각하며 하고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2학년 유비 기자 · yoo94@gmail.com〉

남녀노소 모두가 도자기에 관심을 가질 때까지 최성신 도예가



▲ 최성신 도예가와 그의 작업실

최성신 씨는 전통도자기의 현대화에 앞장서는 도자 연구가이다. 도공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연스럽게 흙을 주무르게 되었던 그는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경기 으뜸으로 뽑혔으며 현재 대한민국 현대인물사에 장인으로 등재되어 있을 만큼 이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도자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최성신 도예가를 만나 작가의 작품관, 작가가 하는 지역사 회활동, 만드는 작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1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옛것의 현대화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통도자기를 현대도자기로 바꾸는 작업을 말하는 것인데 저도 옛날에는 전통도자기에 대해서만 고집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전통에만 머무르면 안 됨을 깨닫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전통에 현대미를 가미시킨 모든

사람들이 거부반응 없이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자기를 만드는 데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아리나 백자, 분청사기와 같은 전통도자기는 장식의 개념이 강한 것들을 말하지만 현대도자기는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식기류나 때에 따라 장식품도 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즉, 옛 도자기의 장식적인 측면은 그대로 따르고 수용하면서 실생활에서도 사용가능한 실용적인 도자기를 만드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지역사회활동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입니까?

현재 남양주에 있는 진접고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예수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접고에는 2010년부터 쪽 수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나갔었습니다. 도예라는 것은 흙이라는 무생물에 혼을 불어넣는 작업이라고

할 만큼 정신집중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집중하면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다보면 자신의 심리적, 정신적 갈등이 작품을 통해 표현이 됨으로써 이를 통해 그 갈등이 해소되어 미술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방과후 수업 정도로 진행되었으나 반응이 매우 좋아 정규수업으로 채택이 되어 지금은 신청을 하는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에 한, 두 번 만질 기회가 있을 법한 흙을 만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흙에 대한 중요성이나 고마움을 느끼게 하여 아이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섭리와 흙과 관련된 무에서 유의 창조과정을 가르치며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다 큰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수도 있었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여 청소년이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 작업실을 보니 토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이유인가요?

저는 아이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종종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단체로 저의 작업실을 찾아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분위기가 평상시의 정적일 때와는 사뭇 다르게 활발해 집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람 모양의 토우인형을 볼 때 나오는 집중력은 매우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이들의 도예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더욱 끌어내기 위해 토우인형을 많이 만들었

습니다. 또한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하여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작업실에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래동화인 흥부리영감 이야기 아니면 서구유럽의 동화인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들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엮어내면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전시 되어있는 토우인형들을 보면서 신나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 매우 기쁘고 저 또한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해주는 좋은 계기를 주는 작품들이 것 같아 애착이 갑니다.

4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는 대학에도 도예과가 많이 생겨 전문적으로 도예를 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저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졸업장을 따야겠다는 생각으로 도예과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 진심으로 도예가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과 같이 성인을 대상이 아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예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큰 꿈이자 목표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작품을 만들고 많이 접하다 보면 흥미도 더 생길 것이고 조금 더 편하게 도예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학년 이상훈 기자 · lsang0110@naver.com〉

시각장애인 유도대표 이정민 유도로 희망의 빛을 밝히다



양평군청 소속의 이정민 유도선수는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남자유도 -81kg급에서 금메달을 따고 지난 2월 헝가리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오픈대회의 남자유도 -81kg급 체급에서 우승을 하는 등 대한민국 시각장애인 유도의 간판선수이다. 또한 작년에 비장애인 유도대회인 2014 실업최강전에서 같은 체급의 최강자라 불리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왕기춘 선수를 한판승으로 제압할 만큼 인정받는 실력자이다. 이에 이정민 선수를 만나 유도를 시작한 계기, 훈련방법, 올림픽에 대한 각오 등을 인터뷰 해 보았다.

1 유도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선수인 지금과는 달리 어릴 적에 몸이 약하고 체구도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 방과 후 특기적성 수업으로 유도부가 새롭게 생긴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운동을 좋아하였던 저였기에 유도는 어떤 운동인지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체력도 키울 겸 유도수업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배우다 보니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제가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여 감독님이 직접 저의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유도에 더욱 정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유

도부가 있는 학교에 진학하여 운동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쉬지 않고 운동을 할 것이 지금처럼 선수로 활동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본인만의 특별한 훈련방법이나 마음가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 승리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꾸준함과 상대 선수에 대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장애인유도가 아닌 일반유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위하여 장애인유도로 전향하면서 원래 했던 유도와는 조금 다른 것을 해야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장애인유도에 적응하기 위하여 그것에 대한 연구와 꾸준한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꾸준함과 새로운 것에 대한 연구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왕기춘 선수와 같은 최고의 선수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쉬지 않는 실전과 연습이었습니다. 작년에 태릉선수촌에 참가한 선수와 김재범 선수의 훈련파트너로 잠시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정삼급 선수들의 기술이나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함께 훈련을 받으며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항상 함께 연습을 하면서 선수에 대한 분석을 머릿속으로 하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 지에 대해 많이 생각 했습니다. 물론 운도 크게 따랐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노력도 승리에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지도 사람인지라 훈련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위의 저를 지켜봐주는 가족들, 친

구들을 생각하면서 견뎌냈습니다. 또한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뚜렷한 목표도 저의 승리에 대한 큰 자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유도 선수로서 목표나 각오는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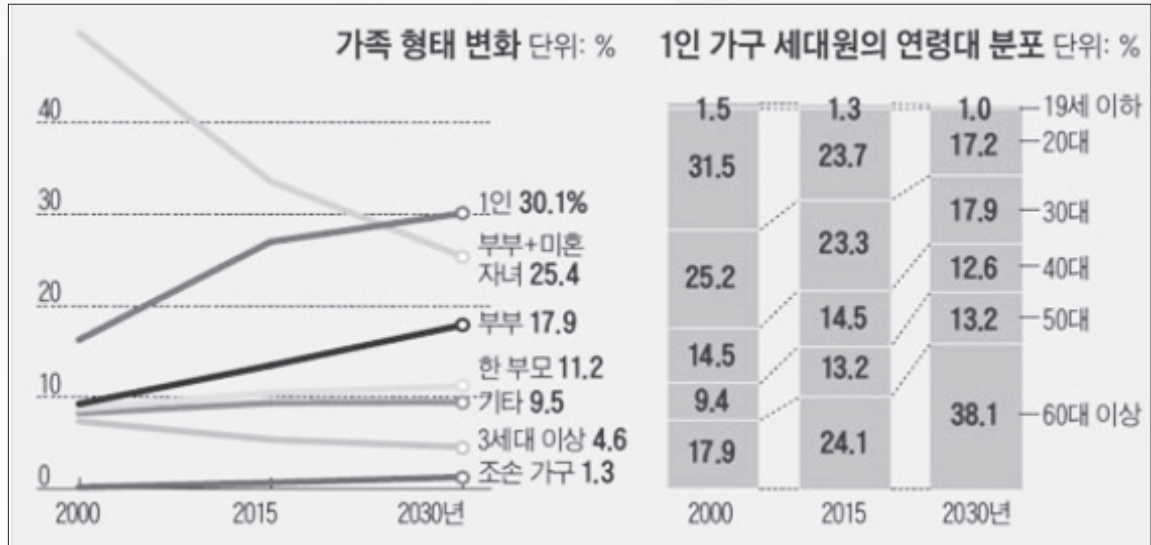
누구보다 자존심도 강하고 지는 걸 싫어하는 제 입장에서 일반유도에서 장애인유도로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단점이나 콤플렉스를 가늠하면 숨기고 싶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아 건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로서 올림픽이라는 대회에서 뛸 수 있다면 무엇이든 전혀 마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국가대표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열린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작게나마 국가에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정민 선수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일단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올림픽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하였다. 선수 은퇴 후에는 체육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 특수체육 분야에 종사하여 유도를 알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도에 대해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모두 쏟아 부어주어 아깝지 않은 스포츠라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유도를 재밌게 배워 체력증진이나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끝마쳤다.

〈3학년 손대현 기자 · eogus313@gmail.com〉

가족 구조가 변하고 있다

1인 가구와 사회적 가족의 증가



▲ 통계로 본 서울 가족 구조 및 부양 변화 (출처 : 서울시)

■ 2000년 이후 변화하는 가족 구조
보통 가족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부모님과 자녀들로 구성된 핵가족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한집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대가족이 보편적이었으나 사회가 변하게 되면서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핵가족 형태의 가족이 되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대가족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생소해질 정도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어온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이제는 핵가족이 보편적이라는 인식도 변화할 상황에 놓여 있다. 서울시가 2015년에 발표한 '통계로 본 서울 가족 구조 및 인구 부양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 현재 서울의 1인 가구는 98만 2000가구로 전체 363만 2000가구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0년 전체 가구의 절반(49.8%) 정도였던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 비율은 올해 33.6%로 줄었다. 가구원 수 감소 추세도 뚜렷하다. 2000년엔 4인 가구(32.1%)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3인(21.7%)·2인(17%)·1인(16.3%) 순이었지만, 올해는 1인(27%)·2인(24.7%)·3인(22.7%)·4인(19.6%) 가구 순으로 완전 역전됐다. 4인 가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1인과 2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면서 이러한 비율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2030년에는 1인 가구가 서울 전체 가구의 30.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어 가족 개념에 변화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인구 구조의 변화가 불러온 1인 가구의 증가

이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만혼 및 이혼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혼 관련해서 1인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최근 자신의 삶을 독신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네오싱글족', '골드미스'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미혼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1인 가구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해 1인 가구가 되는 경우 최근에는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부부가 이

혼하는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어 1인 가구의 증가의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장·노년층 중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1인 가구 중 60세 이상 비율은 2000년 17.9%로 20~30대보다 적었으나, 올해의 경우 24.1%로 전세대 중 가장 많았다. 2030년이 되면 60세 이상 1인 가구는 전체의 38.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60세를 넘긴 부모가 더 이상 성인이 된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이런 변화를 이끌고 있다. 201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 자녀와 따로 사는 사람 비중은 54.8%였다. 60세 이상 중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 비중도 2012년 49.3%에서 2013년 71.4%로 늘었다. 자녀에게 얹매이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는 게 이들 중·장년층의 대답이다. 또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부모의 노후 생계를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녀가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2년 64.8%에서 지난해 31.2%로 감소했다. 이와 같이 부모의 노후 생계를 자녀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아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업 및 취업으로 인한 1인 가구가 늘어난다

한편 학업과 취업을 위해 혼자 사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학업 관련 1인 가구는 대학 입시 준비나 진학 등의 이유로 홀로 지내는 사람들로, 가장 흔하게는 지방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올라와 혼자 지내는 20대 청년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중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단독 가구주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열악한 경우에는 고시원 등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취업이나 취업 준비를 위해 홀로 지내는 1인 가구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30대 청년의 경우, 이전보다 취업 준비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취업 준비를 위해 재학했던 학교 인근이나 학원가 등에서 홀로 지내며 생활하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20·30대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학업 및 취업으로 인해 1인 가구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기러기 아빠'인데, 이들은 대개 아내가 아이와 함께 유학길에 동행하고 기러기 아빠들은 국내에 남아 직장에 다니며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깨지면서 고용과 노후의 불안을 느낀 직장인들이 안정적인 전직을 얻기 위해 뒤늦게 지방의 의대와 약대 또는 한의대로 진

학하는 이른바 '신기러기족'들도 등장하였다. 신기러기족은 기존의 기러기족과는 반대로 가장이 공부를 하기 위해 1인 가구를 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러기족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취업이 되어 직장생활을 하면서 홀로 지내는 청장년 1인 가구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근처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때문에 1인 가구를 형성하는 청장년들이 많아진 것이다. 특히 직장의 지방 이전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일 때, 자녀의 학업을 위해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고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 변화하는 가족 구조, 사회적 가족 개념의 등장을 야기해

이와 같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심지어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함께 살지 못하는 가구들이 늘어감에 따라 새로운 가족 개념으로 사회적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다. 사회적 가족이란 기존의 가족이 혈연관계로 이루어졌다면 사회적 가족은 사회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는 사람들끼리 혈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사는 것을 말한다. 1인 가구가 늘어감에 따라 혼자 살며 겪게 되는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정 등의 문제를 혈연이 아닌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

족을 초월한 가족'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회적 가족의 대표적인 유형은 최근 늘고 있는 공유주택들이다. 공유주택은 입주자들이 사생활을 누리면서 공용공간에서 가족처럼 생활하는 주거 방식이다. 이 공유주택 안에 일면식조차 없던 이들이 인터넷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모여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가족의 형태를 이루어 사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가족은 미래에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불안정이나 외로움, 독거노인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가족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또한 사회적 가족의 개념까지 등장하고 있어 가족의 사전적 개념에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급격히 변화해 가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기존의 가족 개념에까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1인 가구가 늘어가며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2학년 정재우 기자·jjw68@naver.com〉

큰 손으로 떠오른 1인 가구, 기업들도 이에 맞춰 변화중

시장에서 1인 가구들이 새롭게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홈플러스, 이마트 등과 같은 대형 마트의 2015년 1분기 판매 내역을 살펴보면 자취생을 비롯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주방가전·생활잡화·간편식 매출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G마켓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이 저렴하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패스트 가구'의 판매가 늘어가는 등 1인 가구를 위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기업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커진 원인은 단순히 1인 가구가 과거에 비해 많아진 것도 있지만, 1인 가구의 월 가처분소득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크다는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13년 20~40대 사이의 가구별 월 가처분소득 비교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가 3~4인 가구에 비해 월 가처분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월 가처분소득은 평균 80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에서 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2.9%와 17.2%로 두 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비율에서 특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1인 가구가 양육·부양의 부담이 없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1인 가구의 월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1인 가구들은 시장 전반에 있어서 새로운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이 시장 전반에서 다른 가구들보다 손이 큰 1인 가구를 위해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들은 1인 가구의 소비행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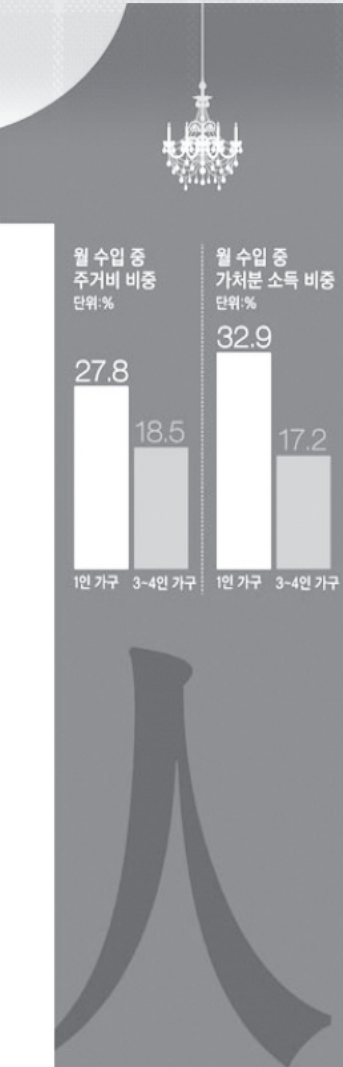
SOLO형 소비로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새로운 판매 전략들을 세우고 있다. SOLO형 소비란 자기(Self) 지향성이 강하고, 온라인(Online)을 통해 구입하고, 저가 제품(Low price)과 편리성(One-stop)을 중시하는 소비를 줄인 말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본으로 하여 기업들은 식품들을 소포장해서 팔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 조리해 해먹는 1인 가구들을 노린 판매 전략들을 세우고 있으며, 가구도 1인용 밥솔이나 싱글 침구 등을 들여놓으면서 1인 가구들을 노린 다양한 판매 전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 중에 최근 나타난 네오싱글족들을 겨냥한 판매 전략들이 세워지고 있어서 흥미롭다. 네오싱글족이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독신주의자를 일컫는 말로, 탄탄한 경제력과 디지털 활용능력을 갖추고 자신만의 독신문화를 만들어 가는 독신주의자들이다. 특히 이들에게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무언가 남들과 달라야 한다는 차별화 경향을 보이고,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하여 그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꾸려 나간다는 점인데, 기업들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그들의 입맛에 맞는 디지털 기기들을 판매하고 있다. 네오싱글족들이 자기계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어학실이나 도우미 주는 디지털 어학이나 인터넷강의를 위한 PMP들을 다양한 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그들의 주거공간을 꾸미는 것에 열을 올리는 네오싱글족들의 특성을 고려해 집에 영화관 정도의 시설을 보장해주는 가전제품이라든지 혼자 살지만 스

마트하고 깔끔한 생활을 원하는 네오싱글족들의 특성을 노린 집안 청소를 돕기 위한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1인 가구들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히 20·30대들이 월세집에 많이 살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대와 30대의 1인 가구들은 각각 61.2%와 49.3%의 비율이 월세집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30대의 젊은 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 임대 정보만 다루는 모바일 부동산 정보서비스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2012년 서비스를 시작한 '작방'이라는 모바일 부동산 정보서비스는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로 모바일 앱 다운로드가 500만 건, 사용자들이 600만 명이 넘을 만큼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작방'에서는 매매 거래는 취급하지 않고, 당장 주거가 필요한 젊은 1인 가구의 수요에 맞는 주거용 오피스텔·원룸·투룸, 소형 다가구주택 등의 전월세 정보만 다루고 있다. 기존의 부동산 정보업체도 모바일 시장에 새롭게 뛰어들고 있는데, 부동산114에서 출시한 '방콜'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모바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20·30대의 젊은 층들이 직접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 검색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30대의 입맛에 맞는 전·월세 임대 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의 월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시장에 있어 1인 가구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가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맞게 기업들은 다양한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다. 미래에는 1인 가구가 지금에 비해 훨씬 늘어갈 통계자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앞으로 1인 가구가 시장 전반에 어떠한 새로운 영향을 끼칠 것인지 주목해 볼 만 하다.

〈3학년 김은지 기자·28eunjee@naver.com〉

기자칼럼

이제는 어깨띠고 당당히, '혼밥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필요

혼자 밥을 먹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양쪽 귀에는 노래가 흐르는 이어폰을 꽂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다른 손에는 수저를 들고 혼자 밥을 먹는 풍경은 이제 많은 대학생들에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부끄러워 걸어 다니면서 먹거나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몰래 먹는 대학생들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밥은 함께 먹어야 한다는 인식은 점점 대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들을 부르기 위한 혼밥족(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은어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세상은 혼밥족의 등장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온 '함께 먹'의 문화의 영향으로 혼밥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 많은 언론 기관들은 혼밥을 젊은이들의 우울한 현실을 대변하는 단어라고 소개하고 있다. 공동체 정신을 파괴하는 잘못된 풍조로 단정 짓고 청년들도 함께 먹는 문화를 되찾아야 한다는 기사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취업난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저하'로 인하여 예전부터 내려오던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 같다. 취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취업 빙하 시대'에서 대학생들이 가까운 친구조차 경쟁자로 여겨 개인주의가 팽배해졌다는 부정적인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는 혼밥이 대학생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가천대 식품영양과 교수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에 의하면 혼밥을 하게 되면 식사를 빨리 끝내게 되고, 인스턴트 식품을 주로 먹게 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혼밥족들은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혼밥을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자연스러운 사회 변화로 용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최근에는 자발적 혼밥족들도 많다. 이들은 밥을 혼자 먹으면 식사 약속을 잡거나 식당을 찾는 데 허비되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취업 준비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많아지면서 자발적 혼밥족들은 인간관계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아껴 쓰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 같다. 취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취업 빙하 시대'에서 대학생들이 가까운 친구조차 경쟁자로 여겨 개인주의가 팽배해졌다는 부정적인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는 혼밥이 대학생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가천대 식품영양과 교수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미 혼밥족은 우리 사회에 이미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혼자 밥을 먹는 풍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현대 사회는 스펙을 쌓거나 수업을 듣는 등 대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인정하면서 대학생들이 혼자 밥을 먹는 것을 바람직하게 바라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인식과는 상관없이 이미 대학생 사이에서 혼밥 문화는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어 우리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가 확산된다는 인식보다는 혼밥 문화는 하나의 사회 변화로 자리 잡아 나간다고 용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혼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혼밥이 부끄러운 대학생들이 밥을 화장실에서 먹거나 길거리에서 인스턴트 음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하고 있다. 그들이 당당히 먹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4학년 최희일 기자·hichoi4649@nate.com〉

향기로 완성되는 자신감, 예의 그리고 매력

인류 최초의 화장품이라고도 불리는 향수는 최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널리 사용된다. 상대방에게 좋은 향기를 풍기는 것은 기본적인 매너일 뿐 아니라 자신의 매력을 높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향수의 기원은 종교적 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고대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신의 지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제사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다. 때문에 몸을 청결히 하고 향나무잎으로 즙을 내어 몸에 바름으로써 좋은 향기가 나도록 했다. 그 후 향수는 이집트 문명을 거쳐 그리스와 로마로 퍼져 귀족계급의 기호품이 되었다. 향수가 화폐 대용으로도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향수가 귀족계급의 전유물이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고구려와 백제의 승려가 각각 중국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향료를 들여왔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에서는 향료 사용이 대중화되었는데 귀부인들이 향낭을 몸에 항상 지녔다는 것으로부터 이를 알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향낭을 많이 지니는 것을 자랑처럼 여겼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향낭이 유행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4세기에는 지금의 향수에 가까운 향가리 워터가 제조되었다. 이것은 당시 향가리의 왕비인 엘리자베스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증류 향수이며 최초의 알코올 향수이다. 1508년에는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는 성 마리아베라의 도미니코회 수도사가 향료조제용 아틀리에를 개설하여 유리향수를 제조하면서부터 그 전성기를 맞게 된다.



▲ 최초의 알코올 향수인 향가리 워터

■ 향수의 종류

향수에 포함되는 향료의 농도를 부향률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사용되는 향수는 부향률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퍼퓸(Perfume) 퍼퓸의 경우 향료를 15~30%까지 함유하고 있다. 향수 중에서 가장 농도가 진하며 향기의 지속시간이 6~7시간으로 가장 길다. 농도가 진한만큼 가격이 비싸며 과하게 뿌리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②오 데 퍼퓸(Eau de perfume) 향료의 농도가 9~15%정도이며 5시간 전후로 향기가 지속된다. 퍼퓸보다는 향기가 약한데 향수를 수시로 뿌리기 곤란할 때 사용하면 좋다.

③오 드 뚜왈렛(Eau de toilette) 오 드 뚜왈렛은 부향률이 5~8%로 지속시간은 3~5시간 전후이다. 스프레이의 형태가 많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입의 향수이다. 향이 강하지 않은 만큼 가벼운 느낌으로 전신에 뿌려 사용한다. ④오 데 코롤(Eau de cologne) 오 데 코롤은 농도가 3~5%로 15~20%의 증류수와 알콜이 함유되어 있다. 향의 지속시간은 1~2시간으로 독일의 힐데에서 유래되어 프랑스어로 코롤이 되었다. 뿌렸을 때 상쾌한 느낌이 커서 운동 또는 샤워 후에 전신에 사용한다. ⑤샤워 코롤(Shower cologne) 이름에서 짐작이 가듯 2~5%의 낮은 부향률로 샤워 후에 은은하게 전신에 뿌려 사용하기 좋다. 이러한 향수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을 알고 본인이 원하는 종류의 향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매력지수를 높이는 올바른 향수 활용법 향수 역시 옷이나 장신구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선택의 기준은 없으며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향이 있는 만큼 각 향이 주는 느낌도 다르다. 자몽, 레몬, 감귤 등 과일 향 계열의 향수는 보다 어린 느낌을 주며 야쿠아마린 향은 직장인에게 어울린다. 또한 비누 향처럼 은은한 풀향기는

경쾌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적절하다. 외출이나 파티에는 산뜻한 꽃향기 계열의 향수가 적합하다. 이는 각 향이 일반적으로 주는 느낌일 뿐 본인에게 맞는 향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향수를 고를 때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향수를 뿌리고 난

직후의 냄새는 알코올이 섞여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냄새가 변화하므로 뿌리고 5~10분 후에 시향하는 것이 좋다. 또한 향수를 선택할 때는 한꺼번에 다양한 향을 맡지 않아야 한다. 코는 오감 중 가장 빨리 피로를 느끼게 되므로 여러 향을 한 번



▲ 다양한 종류 중 본인에게 맞는 향수를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출처 : 스킨데 에스테틱)

에 맡을 경우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향수를 뿌려도 각자의 체취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할 당사자가 직접 시향해 보는 것이 좋다. 이미 향수를 뿌린 상태에서 또 시향을 하는 것도 효율적인 판단을 위해서 피해야 한다.

향수를 적절하게 선택한 후에는 사용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장마철에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 향기가 오래가므로 향수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후덥지근한 날에는 피부에 직접 뿌리는 것보다는 머리카락이나 옷에 살짝 뿌리는 게 좋다. 그리고 체취를 숨기기 위해 겨드랑이 등에 직접 향수를 뿌리는 것은 삼가야 한다. 냄새가 사라지지 않고 땀 냄새와 섞여 이상한 향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향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하반신에 뿌리면 지속시간이 더 길어진다.

■ 자연에서 빌려온 천연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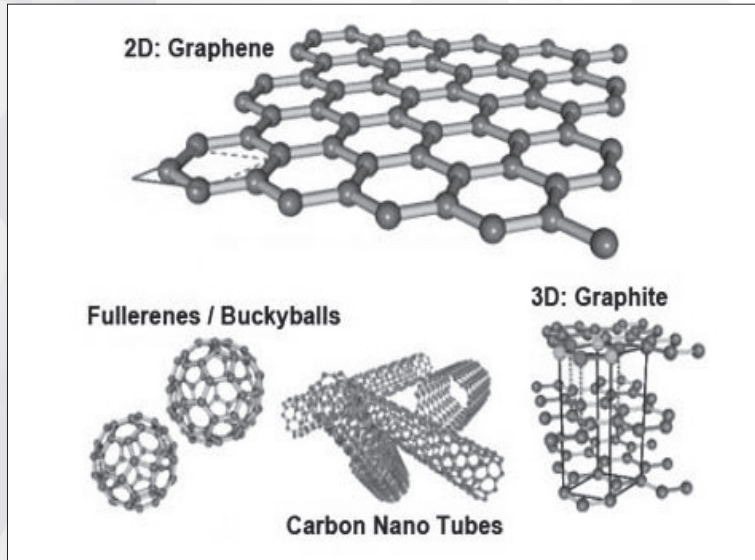
최근에는 인공향수 뿐 아니라 천연향수도 인기를 끌고 있다. 천연향수는 주로 아로마향수라고 불리며 주된 재료는 아로마오일, 정제수, 올리브리퀴드, 알코올이다. 아로마오일은 식물의 꽃, 잎, 줄기에서 추출한 오일로 식물의 종류와 부위에 따라 증류하거나 압축하여 추출한



▲ 아로마오일을 이용한 천연향수 (사진출처 : 로렌트리 공방)

천연향수는 두통과 울렁거림으로 인해 인공향수를 쓰기 어려운 사람들이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이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로마오일의 종류에 따라 피해야 할 부분이 있고 섞었을 때 적절한 비율이 있으며 향기를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 등 주의점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학년 조정필 기자 · ch_feel@naver.com>

꿈을 향해 다가가는 탄소의 재발견



▲ 탄소 동소체들의 분자구조

풀러렌, 탄소나노튜브, 그래핀의 공통점은 흑연과 같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탄소나노소재들은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걸쳐 연이어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특히 풀러렌과 그래핀은 발전자들에게 노벨상이 수여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많은 나노소재들 중에서 이들이 그토록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구조가 간단하거나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원소 중 하나인 탄소로 이루어져서만은 아니다. 이들은 흑연결정의 기본구조인 탄소의 육각형 공유허합 형태를 가지면서 뛰어난 전기전도성, 화학적 안정성, 열전도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04년에 발견된 그래핀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업화를 위한 투자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분자구조와 특징 및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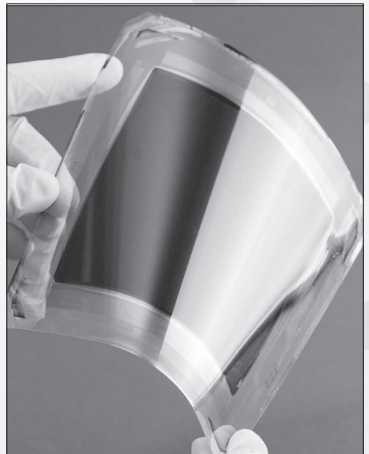
그래핀의 분자 구조는 전체적으로 육각형 그물모양 평면을 이루어 강한 결합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탄소 동소체와 비슷하다. 그러나 측면을 살펴보면 두께가 원자 하

나 정도로 매우 얇은 특징점을 지닌다. 때문에 투명하면서도 튼튼한 성질을 가진다. 그래핀은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이로 인해 연구와 투자의 대상이 된다. 먼저 그래핀은 주위의 흔한 흑연으로부터 쉽게 추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가지 일화를 들 수 있다. 2014년 안드레 가임과 콘스탄틴 노보셀로프는 그래핀을 발견하는데 이 때 스카치테이프만을 이용해서 그래핀을 분리해냈다. 이는 흑연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였다 떼다 반복함으로써 매우 간단하게 그래핀을 얻은 것이다. 현재에는 화학적 분리법이나 전기적 분리법 등으로 그래핀을 얻어내는데 실험이 용이하고 연구를 통한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은 여전하다. 또한 반도체와 태양전지의 구성물질인 실리콘과 산화인듐주석에 비해 월등한 전기전도성을 가지면서 변형에 잘 견딘다. 상온에서 구리보다 약 100배 많은 전류를 실리콘보다 100배 빠른 속도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뛰어난 전기전도성 덕분에 실리콘을 대체할 차세대 반

도체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래핀은 구리나 알루미늄 등의 금속에 비해 10배에 달하는 우수한 열전도성을 보여주며 다이아몬드보다도 우월한 강도를 자랑한다. 그래핀에 힘을 가해 잡아당기면 파괴되기 전까지 최대 20%까지 늘어나는데 이는 결정형 구조를 갖는 고체 중 가장 큰 값이다. 게다가 2차원 평면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적 결함이 존재하지 않고 휘거나 접는 형태의 변형이 가능한 것이다. 물리적인 두께에 있어서도 상당한 장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약 30,000nm로 생각한다면 그래핀은 0.34nm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소재의 투명도가 높아 화면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 활용과 장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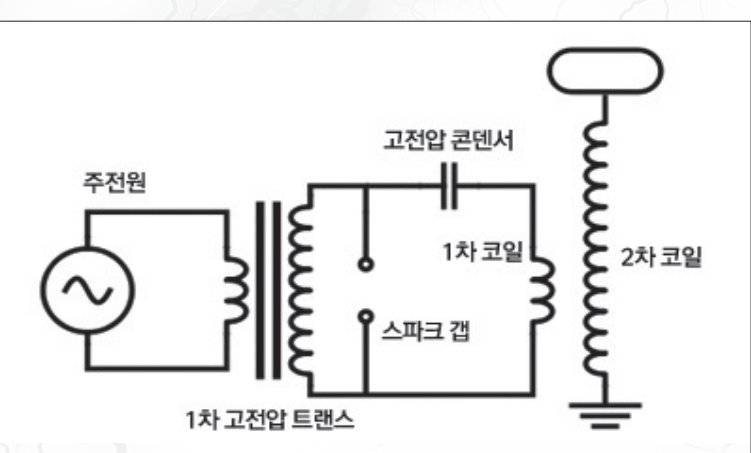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래핀의 특이한 성질은 장점으로 발전할 여지가 높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생산되는 반도체 소자는 실리콘 트랜지스터로 구성된다. 반도체 소자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개별 트랜지스터 소자의 크기를 줄이거나 높은 전자 이동도를 갖는 새로운 물질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도성이 다른 물질에 비해 월



▲ 그래핀을 활용해 제작한 디스플레이

등한 그래핀이 최근 들어 실리콘을 대체할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기존의 일반 전자 소자와는 달리 투명한 반도체막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투명 트랜지스터, 투명 전극 등을 기반으로 제조한 이 디스플레이는 투명한 패널에서 정보표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축성이 좋은 그래핀의 특성상 휘어지는 화면을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자동차 계기판이나 전자제품 등에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태양빛의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태양전지의 경우 빛을 산란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모아서 전기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그래핀을 활용한 나노구조로 만들게 되면 모을 수 있는 태양빛의 양이 기존보다 20배 증가한다. 태양전지의 에너지 효율을 극적으로 높인 것이다. 또한 그래핀의 저가 생산 기반이 마련되면 태양전지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높은 발전 단가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그래핀은 활용도와 효율성이 높으며 따라서 높은 연구 가치를 지닌다. 처음 발견된 이래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그래핀 연구와 동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렇게 관심을 받는 만큼 특허 등록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로 미루어보아 그래핀은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보다 편리한 인류의 생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뿐 아니라 대중의 관심도 필요하다. <3학년 주휘진 기자 · joojoin73@naver.com>

에디슨에 가려진 위대한 발명가, 테슬라



▲ 테슬라 코일의 회로도

세르비아 태생의 니콜라 테슬라는 어린 시절부터 발명에 천부적인 재능과 관심을 보였다. 그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면 환상을 보곤 했는데 강한 빛과 함께 나타나는 이미지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여 머릿속에 발명의 과정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실제로 그는 특별한 설계도나 모델이 있지 않아도, 실험을 하지 않고도 발명에 필요한 과정을 머릿속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새로운 발명을 만들 때 이처럼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설계처럼 구현한 한 후 에야 행동에 옮겼다고 한다.

■ 전류전쟁, 그리고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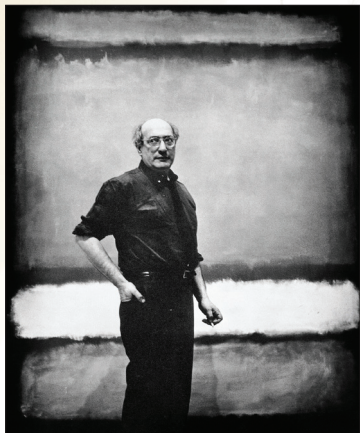
테슬라는 직류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었던 당시의 관념을 깨고 교류 시스템을 개발했다. 에디슨의 직류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많은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던 원자력회사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이 우수함을 알고 교체작업을 시작한다. 에디슨은 테슬라가 웨스팅하우스와 교류 시스템과 관련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금치 못했고 소위 전류전쟁이 시작되었다. 에디슨은 곧바로 교류의 위험성에 대해 다른 자료들을 적어내기

시작했다. 교류 전기를 이용해 동물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장면들이 포획된 전단지들을 배포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소유하게 된 특허기술들에 소송을 거는 등 지속적으로 테슬라가 발명한 교류시스템을 비난했다. 이런 에디슨의 공격에 웨스팅하우스는 교류 시스템에 대한 교육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연설, 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활동했다. 웨스팅하우스의 활동으로 대세는 점점 직류에서 교류 시스템으로 넘어오기 시작했고 에디슨의 주변인들은 교류 시스템의 우월성을 깨닫고 에디슨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에디슨은 주장을 관철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결국 테슬라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을 연장하여 자신의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고 웨스팅하우스는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 끝내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을 이용한 발전소를 세웠다. 에디슨과의 전류전쟁이 테슬라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전류전쟁은 테슬라의 발명과 재능이 에디슨에 뒤처지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주며 오늘날 테슬라에 비해 에디슨에 대한 인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에 의문을 품게 한다.

■ 테슬라 코일

테슬라의 또다른 업적으로 테슬라 코일을 꼽을 수 있다. 테슬라 코일은 간단히 말해서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바꾸주는 장치이다. 테슬라코일을 작동시키면 1차 고전압 트랜스가 가정용 교류 전압을 약 200배 증폭시킨다. 이렇게 변환된 에너지는 콘덴서를 충전시키고 콘덴서에서 충전된 전하가 스파크 갭을 가로지르며 만큼 충분히 모아졌을 때 스파크 갭 사이에서 스파크가 발생된다. 이 때 콘덴서에 저장된 에너지는 1차 코일에 전달되고, 1차 코일과 2차 코일 사이에 전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러한 과정은 초당 수백에서 수천 회에 이르는 속도로 빠르게 반복된다. 2차 코일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 사이에 형성된 전자기장에 의해 에너지를 흡수하고 전압이 크게 증폭된다. 이러한 원리는 마치 작은 눈덩이를 굴리면 큰 눈덩이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 테슬라 코일은 현재 상용화되지는 않았으나 전기가 공기를 통해 흐를 수 있음을 알렸고 번개의 원리를 시작화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추측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를 이용해 공인 이동도 시도했을 것이라는 점은 테슬라의 우수함과 창의적인 발명능력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런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에디슨은 알고 있지만 테슬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물론 에디슨도 많은 역작은 탄생시킨 발명가임이 분명하지만 테슬라 역시 당시 규모 있는 과학 프로젝트에 참가할 만큼 훌륭한 과학자였으며 발명가였다. 현재의 그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충분히 재조명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4학년 허기석 기자 · heogseek1@hanmail.net>

살아 숨쉬는 침묵의 예술, 마크 로스코展



▲ 마크 로스코(1903~1970)

“내 작품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침묵이다.” 침묵과 단순함을 추구했던 추상표현주의의 선구자이자 세계적인 화가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가 남긴 말이다. 바로 이 세계적인 거장에 대한 전시가 이번에 한국에서 열린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미국 워싱턴 국립미술관 소장 로스코 작품 50점이 2015년 3월 23일부터 2015년 6월 28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다. 2015년 국내 전시 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전시로 평가받는 이번 전시는 작품 평가액만 약 2조 5천억 정도로 국내 전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추상표현주의의 국내 첫 단독 회고전이라는 데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마크 로스코와 그의 작품세계, 그리고 전시회장에 재현되어 있는 로스코 채플까지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 마크 로스코의 생애

마크 로스코는 1903년 러시아 드빈스크에서 마르크스 로스코비츠라는 이름으로 태어난다. 1913년 로스코 가족은 미국 오리건주로 이주하고, 로스코는 예술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2년 만에 중퇴를 한다. 이후 그는 뉴욕으로 가서 뉴욕 아트 스튜던츠 리그에 들어가 막스 웨버 밑에서 회화 공부를 하고, 로스코 회화의 초기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밀턴 에이버리를 만나 대담한 색채 사용을 배우기도 한다. 1935년 추상미술과 표현주의에 찬성하는 미술가들 그룹인 ‘더 텐’을 창설하는데 일조한 그는 1938년 마침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1940년에 마르크스 로스코비츠에서 마크 로스코로 개명한다. 이후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점차 독자적인 추상 기법

을 발전시키면서 세계적인 평성을 얻은 그는 당대 최고의 영예를 누린다. 그러나 말기에는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결국 1970년 2월 25일 뉴욕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 지하철 환타지, 1940

■ 그의 작품 세계

마크 로스코는 그림 작품뿐 아니라 작품을 관람하는 환경 또한 매우 중요시했다. 항상 어두운 조명을 추구하고 그림과 감상자의 거리는 45cm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사람들의 목소리와 같은 소음이 감상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모차르트나 드뷔시, 바그너 등의 음악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가 이렇게까지 작품의 온전한 감상에 집착한 이유는 그림이 감상자로 하여금 고유한 감정

을 환기하지 못하면 죽은 작품이라 여기는 그의 사상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마크 로스코는 그림의 완성은 붓을 놓는 순간이 아니라 감상자가 어떠한 감정의 변화를 느끼는 순간이라고 여긴 것이다.

로스코의 초기 작품은 그의 전성기 작품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때도 추상적 특성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형태는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초기 작품인 사진의 ‘지하철 환타지’는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받은 기법을 사용한 작품으로, 도시생활의 익명성과 수동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후 1946년부터 로스코는 ‘멀티폼’ 양식을 도입했다. 커다란 캔버스에 동등 떠다니는 구름과 같은 모양의 다양한 해방된 색채들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로스코는 작품에 제목을 붙이지 않거나 빈칸만 붙이는데, 이는 무엇에서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고의로 꺾은 것이라고 해석된다.

멀티폼 양식이 감상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예술적 감동을 일으키는 힘들다는 한계를 느끼게 된 로스코는 1949년 후반부터 색 덩어리

의 수를 줄이고 모양도 사각형으로 확정하게 된다. 이때부터 그의 작품에는 커다란 캔버스에 2~3개의 압도적이고 강렬한 네모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모든 구체적 표현에서 벗어나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태를 통해, 감상자들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고유하고 근본적인 감정과 경험 그 자체에 강렬한 울림을 주는 그의 작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사진의 ‘무제, 1970’은 로스코가 죽기 직전에 그린 작품으로 ‘피로 그린 그림’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작품의 가운데에 마치 칼로 동맥을 그른 듯한 형태는 섬뜩하면



▲ 무제, 1970

서도 당시 로스코의 깊은 외로움과 우울함을 표현한다.

■ 로스코 채플

로스코의 자살 이후 1971년 텍사스주 휴스턴에 로스코 예배당이 드메닐을 비롯한 기부자들에 의해 헌정되었다. 로스코 채플은 종교를 떠나 모두에게 열려있는 성스러운 ‘절대적 사유’의 공간으로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죽음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통해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사가 ‘생애동안 꼭 방문해야 할 가장 평화롭고 신성한 장소’로 지정한 만큼 큰 의미가 있는 장소로, 이번 전시에는 로스코 채플의 일부가 재현되어 있다.

■ 마크 로스코가 미친 영향

마크 로스코는 그의 작품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순수하고 깊은 본연의 감정을 느끼게 해 주었다. 그의 다양한 철학 중 특히 ‘복잡한 사고의 단순한 표현’은 스티브 잡스에게 깊은 영감을 준 것으로도 유명하다. 캔버스에서 모든 현상과 사물을 지우고 가장 단순한 형태로 인간의



▲ 로스코 채플

감정을 표현해 존재의 아픔에 대한 근원적 해답을 제시한 로스코와, 제품에서 여러 버튼을 생략하고 오직 하나의 버튼으로 세상과 접속하는 경이로움을 탄생시킨 잡스. 두 사람의 공통된 일념이 세상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이 전시를 통해 마크 로스코의 고결한 정신을 배우고, 그의 작품들을 통한 근원적 감정의 변화와 내면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제공: © 1998 Kale Rothko Prizel and Christopher Rothko / ARS, NY / SACK, Seoul)

〈2학년 정승교 기자 · click425@naver.com〉

한국 만화의 거장, 허영만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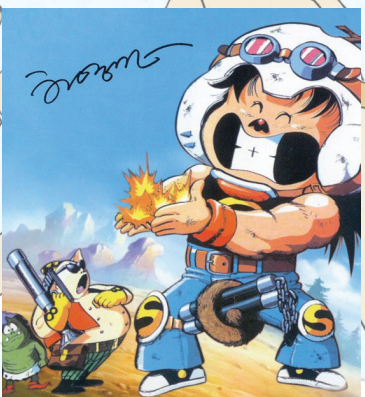


▲ 만화가 허영만

한국의 대표적인 요리만화 ‘식객’, 43%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날아라 슈퍼보드’, 만화와 영화 모두 열풍을 일으켰던 ‘비트’, 800만 관객을 모은 ‘타짜’, 첫 히트작이자 드라마로도 인기를 누렸던 ‘각시탈’. 모두 허영만의 작품들이다. 이렇게 한국 만화 역사에 길이 남을 작품들을 그렸고, 현재까지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허영만의 모든 것이 담긴 ‘허영만展 - 창작의 비밀’ 전시회가 이번에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다. 이 전시는 예술의전당이 처음으로 국내 만화가를 초대한 전시로, 허영만이라는 국내 콘텐츠로 기획된 첫 전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허영만은 1947년 6월 26일 전남 여수에서 태어났다. 여수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그는 바로 8년간 문화생활을 했으며, 이후 만화가 자격시험에 응시했으나 떨어지고 공모전에 데뷔를 했다. 첫 히트작 ‘각시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0년 동안 수많은 작품들을 그려냈으며, 영화나 드라마로 리메이크도 여러 번 되었고, ‘이끼’와 ‘미생’의 작가 윤태호를 비롯해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수년간의 조사와 취재를 마다하지 않으며, 90세까지 현역을 꿈꾼다고 밝혔다는 점에서도 만화에 대한 그의 열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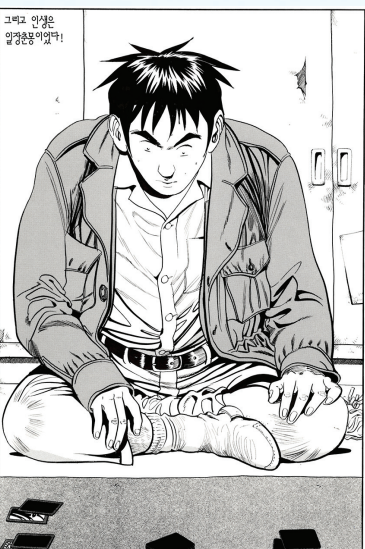
전시는 허영만의 만화들, 만화 캐릭터 입체 조각들, 원화, 만화 창작과정, 허영만의 일상, 그리고 그의 제자 윤태호의 원화들로 구성된다.



▲ 날아라 슈퍼보드(1990)

전시장 입구에 배치되어 있는 정성철 건축가의 ‘허영만의 손’이라는 허영만의 엄지손가락 지문을 표현한 오마주 작품은 15만장이 넘는 원화를 그려낸 허영만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박기봉 작가의 ‘각시탈과 무당거미의 이강도’, ‘제7구단의 고릴라’, ‘식객의 성찬’ 등 여러 캐릭터 입체조각 오마주 작품들도 허영만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마주 작품들이 함께한다는 것이 이번 전시의 특별한 점이다.

전시장 중앙 부분에 위치한 방에서는 허영만의 작품 중 대표적인 원화를 추려내어 확대한 것을 감상할 수 있다. A4 크기의 원작을 거대하게 확대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깨짐이나 왜곡이 없다는 점에서 허영만의 집중력과 섬세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 날마다 소소한 일상을 그린 만화일기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기록한 취미노트는 그의 성실함과 열정을 느끼고 동시에 전시회의 이름과 같이 일명 ‘창작의 비밀’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도 허영만의 일과표 등은 작품 구성과 창작 외의 시간에 허영만이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알려줌으로써 관객들의 호기심을 약간은 해소해주고 있고, 허영만이 직접 그린 스케치 과정을 통해서 만화



▲ 타짜(1999)

창작 과정을 배워볼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40년간 계속된 허영만의 작품들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삶을 살아왔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허영만의 15만 장의 원화와 5000장이 넘는 드로잉에서 엄선된 500여 점의 작품들은 감상자들에게 잊고 있었던 추억을 선물해줄 것이다. 이 전시는 2015년 4월 29일부터 2015년 7월 19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3학년 성명준 기자 · itscool913@naver.com〉

술 한잔 걸치며 책을 고르다



▲ 북바이북의 맥주

동네에서 주민들에게 책을 판매하는 작은 책방의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네서점의 수는 1994년 5700여개에서 2013년에 이르러서는 1700여개로 감소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에서는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네서점 살리기’ 운동을 벌였고, 경기도 화성시 시립도서관 또한 도서관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네서점 운영자들의 자구적인 노력이다. 동네 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동네서점 ‘북바이북’은 이러한 독특한 아이디어를 도입한 대표적인 동네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바이북에는 책백이라는 말이 있다. 치킨과 맥주를 뜻하는 치맥에서 따온 것으로, 책과 맥주를 의미한다. 북바이북에서는 국내 최초로 이러한 책맥을 실천하고 있다. 동네서점에서 책과 함께 커피는 물론 맥주와 보드카, 안주까지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북바이북은 술과 책을 이음으로써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는 데에 성공했다. 북바이북은 또한 주변 음식점과의 제휴를 통해 해당 맛집의 안주를 제공하면서 골목길 상권의 공존 또한 꾀하고 있다.

북바이북은 술 이외에도 음악과 책을 이었다는 특징도 있다. 서점에 들어가면 마치 카페에 온 것 같이 듣기 좋은 음악이 흘러온다. 음악과 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북바이북의 생각이다. 음악은 주로 정통 클래식보다는 캐주얼하고 밝으면서도 잔잔한 느낌의 음악들이다. 최근 들어서는 책과 서점까지 시행 등으로 동네서점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네서점 운영자들의 자구적인 노력이다. 동네 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편안한 쉼터가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책을 이었다는 것이다. 치킨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들러서 미리 주문했던 책을 구입해 가져가, 맥주 한잔 마시며 조용히 책을 보며 마음을 정리하기도 하고,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또한 책의 저자가 독자와 직접 만나는 시간도 있다.



▲ 북바이북 내부

북바이북은 이렇게 서점을 단순히 책을 사는 장소가 아닌 사람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으로써 대형서점과는 구별되는 동네서점만의 끈끈하고 따뜻한 매력을 매우 잘 살렸다고 볼 수 있다. ‘당신, 문제는 너무 열심히 산다는 것이다.’ 북바이북에 써져 있는 문구이다. 이 문구처럼 누구나 잠시 밤 11시가 지 여는 이 동네서점에 여유 있게 들러서 따뜻한 위로와 치유를 받고 가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4학년 조규원 기자 · dmsrb3335@naver.com〉

“괜찮아, 안전해”

‘방심’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마세요.
안전사고는 나를 속이는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됩니다.